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66%...8년만 최저

6월 기준 시간당 임금총액 2만5156원
전년보다 10% ↑...근로시간 10시간 ↓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8년 전인 2016년 수준으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2만2878원) 대비 10%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에서 총근로시간을 나눈 것이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년 대비 월력상 근로일수

가 2일 줄며 근로시간이 10.8시간 줄었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7703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은 늘었으나 그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6.4%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상대수준은 2016년(66.3%), 2017년(69.3%), 2018년(68.3%), 2019년(69.7%), 2020년(72.4%), 2021년(72.9%), 2022년(70.6%), 2023년(70.9%)로 2020년부터는 7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들어 8년 전 수준인 66%대로 뒷걸음친 것이다. 월 급제 및 연봉제가 대다수(95.1%)인 정규직은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크게 늘어난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낮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근로자는 전년보다 9.9% 늘었는데, 특히 시간제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여성’, ‘60세 이상’ 등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성별로 보면 남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8734원, 여성은 2만3633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100으로 보면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70.9%로, 전년보다 0.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나, 8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두고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 조사과장은 “보건복지업 분야에서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스쿨패스’ 국내 첫 모바일신분증 연동

나주 바른정보기술, 네이버·KT와 계약 체결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에듀테크 전문기업 바른정보기술은 차세대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 ‘스쿨패스(School-Pass)’를 국내 최초로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스쿨패스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의 공식 출입증 서비스 계약, KT와의 통신 보안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 기술·통신 기반 모두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학교 정문이나 주출입문 앞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네이버·카카오·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발급 받은 출입 라벨지를 자신의 상의에 부착하면 된다. 누구든지 해당 학교 방

문자의 신원 인증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전원만으로도 작동 가능한 무브먼트형 구조는 설치·운영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크기 50평방미터(㎡)로 매우 작아 공간 제약이 많은 학교 환경에 최적화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한국조폐공사 모바일신분증 운영팀으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아 최근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한 출입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스쿨패스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보안 감시 권한을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과 행정실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자율 보안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김상인 대표는 “스쿨패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출입관리 솔루션이 아니라 출입 보안이라는 영역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실패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이라며 “학교 출입을 통제하는 시대에서, 출입을 공표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시대로 국내 학교의 출입문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자



전남도, 암샘김밥과 손잡고 전복산업 활성화 전남도는 프랜차이즈 기업인 암샘김밥과 손잡고 전복을 활용한 프리미엄 김밥 등 신메뉴 4종을 29일 전국 매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메뉴는 전북계란말이김밥·전복비빔밥·전복계살볶음밥·전복을 쫄면 총 4종이다. 살아있는 전남 전복 100%를 사용했다.

/전남도 제공

테크 서비스 중소기업 수출 확대 지원...400여개사 모집

140억원 투입...현지화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등 지원

기술 서비스(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29일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약 140억원을 들여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

를 400여개사에 특화 지원한다.

기본 서비스는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센터 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이다. 모두 그간 수출바우처 사업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분야다.

특화 분야는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그간 수출바우처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리 구성된 서비스 항목만 이용

할 수 있었지만, 테크 서비스 분야는 더욱 폭넓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 14개 메뉴판 중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메뉴도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테크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형안 기자

순천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개최

베트남 근로자 35명, 농업인 영농 지원 본격화



순천농협은 29일 순천농협 인력중개센터에서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

장, 순천시청 최신철 농업정책과장, 주철호 순천시지부장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순천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천시가 근로 인력을 모집하고 순천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지역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최남휴 조합장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최신철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3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000여 농가에 3200명의 인력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성과를 언급하며, 순천농협의 노력에 발맞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주시, 에너지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모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등 6개 사업...8일 설명회 개최

총 9억7000만원 투입...시제품·인증 등 기술기반 실증 지원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지역산업진흥원과 함께 ‘에너지산업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기업을 오는 5월23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산업 기업지원사업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전기차용배터리 모듈팩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

재양성사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입주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9억7000만원을 투입, 에너지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인증, 마케팅 등 기술기반 실증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사업별 개발 공모가 아닌 6개 세부사업을 통합해 공모할

으로써 참여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없애고 다양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희망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8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설명회를 연다.

사업 신청은 기업지원포털(www.gienerg.go.kr)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각 정당에 분산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배터리 모듈시스템 특화단지 조성 등 넷제로(Net-Zero) 분산에너지 허브 조성 등을 담은 대선 공약과제를 제안했다.

또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등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자원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교육

전남도, 딸기·토마토·멜론·아열대작물 등 20개월 과정

전남도는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 청년 농부 양성을 위해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8기 신규 교육생을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주민등록상 1985년 1월 2~2007년 1월 1일 출생자)으로 지역과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이다.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www.smatfamkorea.net)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육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30일 오후 2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도덕면 스마트팜길 74) 2층 다목적강당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생 선발 인원은 52명이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께 최종 교육생을 선발하고, 8월 사전 교육 후 9월부터 정규 교육에 들어간다. 교육 품목은 딸기, 토마토, 멜론, 아열대작물(레몬 등)이다.

보육센터 교육은 국비로 전액 지

원되며,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취업을 하도록 작물기초·환경제어·데이터 분석 등 입문교육 2개월, 보육센터 실습온실에서 교육형실습 6개월, 교육생이 주도적으로 작물의 전 생육 기간 농업경영을 진행하는 경영형실습 12개월로 총 20개월간 진행된다.

입문교육 과정에는 교육 당일 속식비율, 교육형·경영형 실습 과정은 1인당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형·경영형 실습 과정 중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과 현장지도도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스마트팜 선도농가와 농업박람회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작물 재배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3년) 지원 자격,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과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부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 등을 받을 수 있다.

/김 호 기자

기아 목포지점 서상배씨, 4000대 판매

34번째 ‘그랜드 마스터’...33년간 연 평균 121대 판매



기아의 34번째 누계 판매 4000대 판매왕이 탄생했다.

기아는 목포지점 서상배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대수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Grand Master)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에서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한 우수 오토컨설턴트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다.

서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1992년 기아에 입사해 33년 동안 꾸준히 판매 일선에서 실적을 쌓으며 연평균 121대, 누계 4001대를 판매해 34번째 그랜드 마스터의 영예를 안았다. 기아는 서 선임 오토컨설턴트에

게 상패와 포상 차량을 수여했다.

서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매일 아침 새로운 고객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한결같이 저를 신뢰하고 재구매와 추천으로 성원해준 고객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기아는 ‘장기 판매 명예포상제도’를 통해 누계 판매 ▲2000대 달성 시 ‘스타(Star)’ ▲3000대 달성 시 ‘마스터(Master)’ ▲4000대 달성 시 ‘그랜드 마스터(Grand Master)’ ▲5000대 달성 시 ‘그레이트 마스터(Great Master)’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